

2016 새 설계

조 환 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기업 100년 공생 에너지밸리 조성 신산업 영역 확장 100조 시장 선도”

동반성장·사회공헌 10대 과제

기업유치 위한 지원 다각화

“한국전력공사는 빛가람 1주년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협력과 화합으로 공영경제를 선도하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빛가람 KEPCO 시즌 2’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7일 광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빛가람에서 시즌 2를 열어 나가는 한전은 새로운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업(業)’을 이뤄 나가야 하고, 협력과 화합으로 전력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사회와 국가의 바람직한 길잡이가 되겠다”며 강한 도전의식을 강조했다.

조 사장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한 한전이 협력과 화합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공영경제 생태계를 키워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전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지역민들이 한전 식구들을 새식구로 인정해 주고 사랑과 배려로 받아들여 주신 덕분이다”며 지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 사장은 한전의 새해 10대 과제로 ▲ 전력 수급 시스템 혁신 ▲ 시설과 시스템의 미래화 ▲ 전력업계 공생발전 ▲ 갈등의 보다 현명한 해소 ▲ 전력과 비전력 융합 ▲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에너지밸리 지속적인 추진 ▲ 세계 에너지밸리 조성 ▲ ONE KEPCO 한전 문화 조성 ▲ 사회공헌사업 강화 등을 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지난해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신산업 위주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목표인 50개를 초과해 77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3037명의 고용효과와 4261억원의 투자유치 효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해외사업을 확대해 ‘세계 에너지밸리’를 구축하면서 대표 공기업 한전의 격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도 활발히 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도 한전은 ‘기업유치와 동반성장’, ‘R&D와 인력양성’ 그리고 ‘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추진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유치 대상기업의 다각화 및 창업기업과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 등 기업유치 전략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전력수급 시스템 혁신과 시장에서 중심 역할을 강조하고 한전이 시

장을 만들어 시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갈등을 국지적(局地的)으로 해결하기 보다 앞으로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현안에 대한 보다 현명한 대응 자세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영경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대화합을 이룬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보합대화’(保合大和)를 올해 신년 화두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한전의 에너지신산업 추진 방안에 대해 조 사장은 “전력분야와 비전력분야를 융합해 업역(業域)을 다양화해 나가고 한전의 기능을 발전시키는 한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100조원 규모의 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 우리와 100년을 함께 할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전과 함께 나누는 시, 광주시, 전남도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했다.

조 사장은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진정성이 갖는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고 주저앉은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한전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로 임기가 만료된 조 사장은 재임시 성과를 인정받아 1년 연임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의 연임은 다음 달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한전 사장이 연임하는 것은 박정기, 이종훈 전 사장 이후 세 번째다. /최재호기자 lion@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전 본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aT, 지자체에 학교급식 통합 관리시스템 제공

모든 단계 행정절차 전산화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음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도 지난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해 설명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큰 관심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다.

‘eaT’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은 식재료 계약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며 전자계약방식이다. 학교와 급식지원센터간 서류제출의 불편함을 줄일 수 도 있다.

또 정산데이터를 통해 산출되는 집계 통계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올해도 aT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 관리 시스템에 신규 기능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판로확대를 위해 아동센터, 유치원,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시스템 내에서 전산으로 식단을 작성하여 발주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지원센터 간 거래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 센터별 잉여물량 및 필요 식재료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농가와 지원센터 간 계약채배 또는 거래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예정이라고 지자체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aT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센터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전북 익산, 군산시, 경남 김해시, 제주도 5개 권역과 경상북도의 센터들이며, 총 50개의 센터가 aT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인발굴 오디션 ‘K-루키즈 콘서트’

콘텐츠진흥원, 23일 서울서 6팀 앨범 제작 지원

신인 뮤지션을 뽑는 ‘2015 K-루키즈 파이널 콘서트’가 오는 23일 오후 6시 서울 광진구 악스코리아에서 열린다.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경연에는 ‘데드버튼즈(Dead Buttons)’, ‘보이즈 인 더 키친(Boys In The Kitchen)’, ‘빌리카터(Billy Carter)’, ‘스트레이(The Stray)’, ‘에이 퍼즈(A-FUZZ)’, ‘엔피유니온(NP UNION)’ 등 모두 6팀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이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인 뮤지션 발굴 육성 프로젝트인 ‘K-루키즈’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이다.

‘2015 K-루키즈’에 선발된 6팀은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 연습공간 제공, 신규 앨범 및 뮤직비

디오 영상 제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다.

또 선배 뮤지션과의 합동 기획 공연과 국내 유명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 기회도 주어졌으며, 파이널 콘서트 이후에는 ‘2015 K-루키즈’ 팀들의 합동 전국 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파이널 콘서트에서는 경연을 펼친 6팀 중 3팀을 최종 선발하고, 우승팀에게는 500만원, 2등과 3등에게는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콘서트 진행은 ‘홍대의 유재석’이라 불리는 밴드 ‘소란’의 리더 고영배가 맡는다.

파이널 콘서트를 축하하는 선배 뮤지션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펑크 밴드 ‘크라임넷’을 비롯해



‘데이브레이크’, 뉴테라피 남성 듀오 ‘페퍼톤스’, 밴드 ‘카스’와 함께 ‘2014 K-루키즈’ 우승팀인 ‘아즈버스’가 축하무대를 꾸민다.

전석 무료초대로 진행될 이번 파이널 콘서트의 공연 티켓은 네이버 뮤직 스페셜, K-루키즈 공식 SNS 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K-루키즈 공식 SNS(www.facebook.com/K.Rookies)를 통해 확인할 가능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무식 ‘청렴 결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원장 김명룡)이 지난 5일 오전 본원 대강당에서 시무식과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방송·통신·전파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KCA 임직원 200여명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KCA는 이날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더불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영 및 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 ICT산업경쟁력 강화 기여 ▲

K-ICT스마트미디어 센터의 지역 확대 구축 등 스마트미디어 사업의 특화된 역량 기반 육성 ▲ 철저한 무선국 검사와 중요 통신시설 보호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전파이용제도 마련 ▲ 전파분야 국제협력 업무 강화 ▲ 정부3.0 실현을 위한 전파정보개방사업 확대 ▲ IoT로 대변되는 초연결 산업경제의 주요 인프라인 ‘전파의 가치’ 제고 등을 꼽았다.

김명룡 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혁신과 발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우리 KCA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명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린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